

2. 라틴아메리카 경제지표 2014

권기수

I. 거시경제지표

항목	단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중남미전체
GDP		0.5	0.1	1.8	4.6	2.1	2.4	-4.0	1.3
1인당 GDP	% (연증가율)	-1.0	-0.6	0.9	3.4	1.0	1.6	-4.4	0.1
소비자물가 상승률		21.4	6.3	4.4	2.8	4.0	3.2	57.6	8.9
GDP	십억 달러	556.6	2,176.3	257.0	378.5	1,296.4	202.9	331.6	5,997.3
GDP (구매력기준)		935.9	2,385.9	408.3	462.3	1,929.3	371.3	539.9	8,416.1
1인당 GDP	달러	13,315	10,772	14,459	7,761	10,472	6,594	10,749	9,631
1인당 GDP (구매력기준)		22,415	11,818	23,006	9,490	15,611	12,097	17,298	13,520
실업률	%	7.6	4.9	6.3	9.1	5.1	6.0	6.9	5.9
총외채	십억 달러	147.9	338.6	137.4	93.9	279.0	63.5	110.5	1,230.2
수출		72.1	225.0	76.6	62.5	399.2	38.0	73.4	1,163.6
수입		62.9	229.0	68.1	60.6	397.5	40.9	47.0	1,161.6
무역수지		9.2	-4.0	8.6	2.0	1.7	-2.9	26.4	2.1
외환보유고		28.1	375.8	39.8	47.4	197.0	63.6	20.5	866.6
순외국인직접투자 (FDI)		2.9	64.0	5.5	12.8	9.3	6.9	1.0	122.2
경상수지	% (GDP 대비)	-1.0	-3.8	-1.6	-2.7	-1.8	-4.8	3.4	-2.4
재정수지		-3.3	-6.7	-1.9	-1.8	0.0	0.7	-12.0	-3.6

주 | 2014년 국별 통계의 일부는 각 기관의 추정치, 베네수엘라 총외채는 2013년 기준
 자료 | GDP 증가는 IMF; 1인당 GDP 증가는 IMF, 총외채, 외환보유고, 순외국인직접투자(FDI)는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나머지 지표는 Global Insight 참조

II. 실물경제지표

1. 경제성장률

:: 2014년 중남미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 둔화 및 투자 감소, 대외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 감소에 따른 일차산품 국제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1%대 성장에 그침.

| 국별로는 중남미 최대 경제규모인 브라질(0.1%)과 정치경제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0.5%)와 베네수엘라(-4.0%)의 경기침체가 두드러짐.

| 중남미 2대 경제대국인 멕시코 경제는 2013년 1%대 저성장세에서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성장 폭은 2%대로 여전히 미약한 상황임.

| 그간 중남미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오던 페루(2.4%)와 칠레(1.8%) 경제의 성장세도 일차산품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및 수출 감소로 크게 주춤함.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2	2013	2013	2014
아르헨티나	9.1	8.6	0.9	2.9	0.5
브라질	7.5	2.7	1.0	2.5	0.1
칠레	5.8	5.8	5.4	4.1	1.8
콜롬비아	4.0	6.6	4.0	4.7	4.6
멕시코	5.2	3.9	4.0	1.4	2.1
페루	8.5	6.5	6.0	5.8	2.4
베네수엘라	-1.5	4.2	5.6	1.3	-4.0
중남미	6.1	4.2	2.6	2.7	1.3

주 | 2014년은 IMF 추정치
자료 | ECLAC, IMF.

2. 산업 생산

:: 경제성장 둔화를 반영해 중남미의 산업생산은 마이너스로 전환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를 제외한 5개국에서 산업생산이 감소세를 기록함.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3년 연속 산업생산이 하락함.

| 산업생산이 하락한 5개국 중에서도 베네수엘라(-3.9%)와 브라질(-3.2%)에서의 산업생산 감소가 현저함.

주요국의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9.7	6.5	-1.2	-0.2	-2.5
브라질	10.2	0.4	-2.3	2.1	-3.2
칠레	3.2	8.0	2.2	0.2	-0.9
콜롬비아	4.3	5.0	-0.2	-1.8	1.0
멕시코	4.6	3.4	2.8	-0.5	1.8
페루	10.8	8.6	1.5	5.1	-2.0
베네수엘라	-2.5	1.8	1.9	-0.7	-3.9
중남미	7.2	2.8	-0.1	0.9	-1.4

주 | 2014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3. 민간 소비

:: 그간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민간소비는 201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바, 2014년에는 전년보다 낮은 1.5% 증가에 그침.

| 민간소비 성장세 둔화는 교역조건 악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 고용 창출 및 실업임금 증가세 둔화, 금융권의 신용대출 축소 등에 연유함.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 민간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섬.

|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민간소비는 전년보다 크게 하락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콜롬비아에서만 유일하게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증가세를 보임.

주요국의 실질민간소비증가를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8.1	10.2	4.3	4.3	-1.3
브라질	6.9	4.1	3.2	1.9	1.1
칠레	10.8	8.9	6.0	5.6	2.3
콜롬비아	5.0	6.0	4.4	4.2	4.7
멕시코	5.7	4.8	4.9	2.2	2.1
페루	8.7	6.0	6.1	5.3	4.1
베네수엘라	-1.9	4.0	7.0	4.7	-2.7
중남미	6.1	5.2	4.1	2.8	1.5

주 | 2014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4. 투자

가. 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 일차산품 가격 하락에 따른 투자 감소,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해 2014년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

| 국별로는 콜롬비아, 페루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임.

| 특히 베네수엘라(-17.6%), 브라질(-8.2%), 칠레(-6.4%), 아르헨티나(-5.6%)에서 투자 감소세가 현저함.

주요국의 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22.0	19.4	-7.0	3.1	-5.6
브라질	21.3	4.7	-4.0	6.5	-8.2
칠레	12.2	14.4	12.2	0.4	-6.4
콜롬비아	4.9	19.0	4.6	6.1	9.6
멕시코	1.3	7.8	4.8	-1.6	2.1
페루	23.1	6.0	16.2	7.6	-2.0
베네수엘라	-6.3	4.4	23.3	-9.0	-17.6
중남미	11.5	8.3	2.2	3.0	-2.9

주 | 2014년은 추정치
자료 | Global Insight.

나. 순외국인직접투자(Net FDI)

::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3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됨.

| 2014년 대중남미 순외국인직접투자(FDI)는 1,222억 달러로 전년보다 353억 달러가 감소함.

:: 국별로는 브라질(640억 달러), 콜롬비아(128억 달러), 멕시코(93억 달러), 페루(68억 달러) 순으로 많은 FDI를 유치함.

주요국의 순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10,368	9,352	13,889	10,256	2,945
브라질	36,919	67,889	68,093	67,491	64,000
칠레	6,264	3,192	6,212	9,335	5,500
콜롬비아	-147	5,101	16,135	9,120	12,818
멕시코	10,848	10,992	-4,339	28,955	9,310
페루	7,062	7,518	11,840	9,161	6,860
베네수엘라	-1,462	4,919	756	2,364	1,000
중남미	83,009	127,099	132,234	157,548	122,226

주 | 순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과 중남미 국가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차(差)를 의미함. 2014년은 추정치
자료 | ECLAC.

다. 투자율

:: 큰 폭의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투자율(GDP대비)도 하락세('13년 20.4% → '14년 19.3%)로 돌아섬.

| 국별로는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자율이 감소함. 특히 그중에서도 베네수엘라의 투자율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13년 16.2% → '14년 12.5%)를 나타냄.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 투자율이 중남미 평균을 하회하는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임.

| 특히 베네수엘라의 투자율은 12.5%로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음.

주요국의 투자율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17.9	19.5	18.3	18.3	17.2
브라질	19.5	19.8	18.9	19.3	18.0
칠레	21.1	22.8	24.3	23.4	21.1
콜롬비아	21.9	24.4	24.5	24.8	25.9
멕시코	21.2	21.9	22.1	21.5	21.1
페루	23.2	23.9	25.9	25.8	25.5
베네수엘라	18.7	18.7	21.9	16.2	12.5
중남미	19.9	20.7	20.6	20.4	19.3

주 |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ECLAC.

5. 수출입,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가. 수출

::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일차산품 수출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2014년 중남미 수출은 전년보다 1.7%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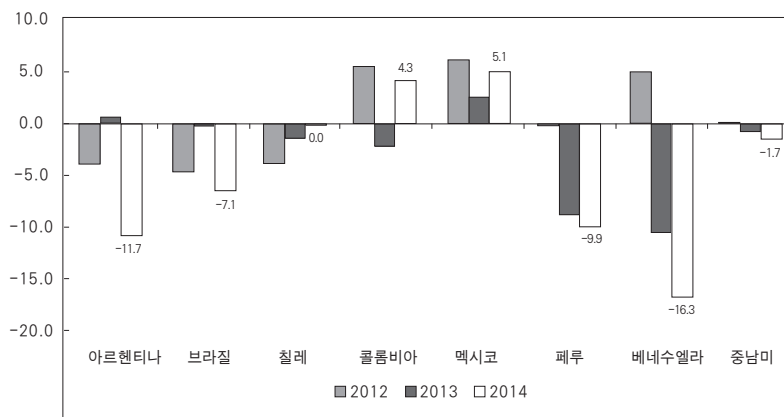
| 2014년 중남미의 교역조건은 전년보다 2.6% 하락했음. 특히 광물 및 금속의 국제가격 하락으로 남미의 교역조건 하락세(-2.7%)가 두드러짐.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가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함.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16.3%), 아르헨티나(-11.7%), 페루(-9.9%), 브라질(-7.1%)은 큰 폭의 수출 하락을 기록함.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수출 감소세로 2014년 중남미의 수출은 2013년보다 200억 달러 줄어든 1조 1,163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가 3,992억 달러로 가장 큰 수출액을 기록했으며, 브라질(2,250억 달러), 칠레(766억 달러), 베네수엘라(734억 달러), 아르헨티나(721억 달러), 페루(38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 특히 칠레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중남미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함.

주요국의 수출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68.1	84.0	80.9	81.7	72.1
브라질	201.9	256.0	242.6	242.2	225.0
칠레	71.1	81.4	78.0	76.7	76.6
콜롬비아	40.9	58.3	61.5	60.0	62.5
멕시코	298.5	349.4	370.8	380.0	399.2
페루	35.8	46.4	46.4	42.2	38.0
베네수엘라	66.0	92.8	97.5	87.6	73.4
중남미	969.2	1,187.0	1,189.8	1,183.6	1,163.6

자료 | Global Insight.

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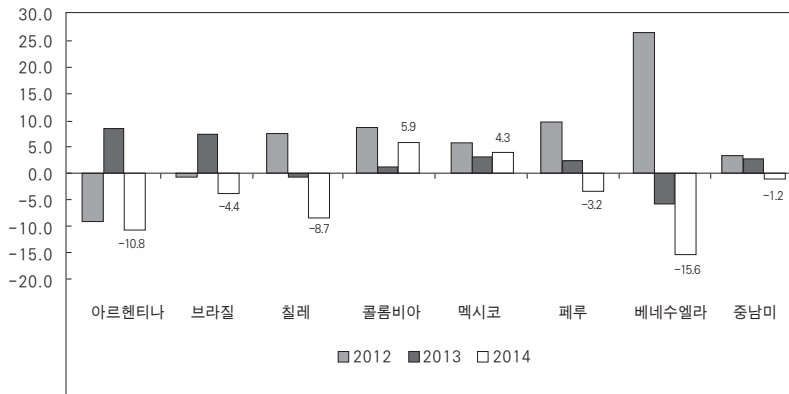
::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반영해 2014년 중남미의 수입은 마이너스 증가세(-1.2%)로 돌아섬.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가 가장 큰 폭의 수입 하락세(-15.6%)를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10.8%), 칠레(-8.7%), 브라질(-4.4%), 페루(-3.2%) 순으로 높은 수입 감소세를 보임.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수입 하락을 기록한데 반해 콜롬비아(5.9%), 멕시코(4.3%)는 수입 증가세를 기록함.

주요국의 수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 Global Insight.

:: 수입 감소세를 반영해 2014년 중남미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142억 달러 감소한 1조 1,161억 달러에 그침.

| 국별로는 멕시코가 3,975억 달러로 가장 큰 수입액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브라질(2,290억 달러), 칠레(681억 달러), 아르헨티나(629억 달러), 콜롬비아(606억 달러), 베네수엘라(470억 달러), 페루(409억 달러) 등이 이음.

주요국의 수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53.9	71.1	65.1	70.5	62.9
브라질	181.8	226.2	223.2	239.6	229.0
칠레	55.4	70.4	75.5	74.6	68.1
콜롬비아	38.4	52.2	56.7	57.2	60.6
멕시코	301.5	350.8	370.8	381.2	397.5
페루	28.8	37.2	41.1	42.2	40.9
베네수엘라	38.5	46.7	59.3	55.7	47.0
중남미	911.1	1,110.1	1,144.3	1,175.8	1,161.6

자료 | Global Insight.

다.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지속적인 수출 감소로 중남미의 무역수지 흑자폭은 2012년을 기점으로 많이 감소함. 그 결과 2014년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흑자에 그침.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가 264억 달러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92억 달러), 칠레(86억 달러), 콜롬비아(20억 달러), 멕시코(17억 달러)가 이음.

| 그에 반해 브라질과 페루는 각각 40억 달러,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주요국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14.3	12.8	15.8	11.1	9.2
브라질	20.2	29.8	19.4	2.6	-4.0
칠레	15.7	11.0	2.5	2.1	8.6
콜롬비아	2.4	6.1	4.7	2.8	2.0
멕시코	-3.0	-1.4	0.0	-1.2	1.7
페루	7.0	9.2	5.2	0.0	-2.9
베네수엘라	27.6	46.1	38.3	32.0	26.4
중남미	58.1	76.8	45.4	7.8	2.1

자료 | Global Insight.

:: 무역흑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외 수지의 개선으로 2014년 중남미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3년보다 소폭 줄어든 1,335억 달러를 기록함.

|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베네수엘라만이 유일하게 흑자(113억 달러)를 나타냄.

| 국별로는 브라질이 831억 달러로 가장 큰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으며, 멕시코(-231억 달러), 콜롬비아(-101억 달러), 페루(-97억 달러), 아르헨티나(-56억 달러), 칠레(-41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음.

주요국의 경상수지 규모 추이

(단위: 10억 달러)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0.7	-3.9	-0.2	-4.8	-5.6
브라질	-47.3	-52.5	-54.2	-81.4	-83.1
칠레	3.6	-3.1	-9.1	-9.5	-4.1
콜롬비아	-8.8	-9.7	-11.8	-12.7	-10.1
멕시코	-4.6	-13.1	-15.4	-26.5	-23.1
페루	-2.6	-3.3	-6.5	-10.2	-9.7
베네수엘라	9.9	25.2	12.2	12.3	11.3
중남미	-60.5	-72.5	-92.0	-139.2	-133.5

자료 | Global Insight.

:: 무역흑자 축소에도 불구하고 무역외 수지의 개선으로 2014년 중남미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3년보다 소폭 줄어든 1,335억 달러를 기록함.

| 국별로는 페루가 -4.8%로 경상수지적자가 가장 컸으며 브라질(-3.8%), 콜롬비아(-2.7%)가 그 뒤를 이음.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0.2	-0.7	0.0	-0.8	-1.0
브라질	-2.2	-2.1	-2.4	-3.6	-3.8
칠레	1.6	-1.2	-3.4	-3.4	-1.6
콜롬비아	-3.1	-2.9	-3.2	-3.4	-2.7
멕시코	-0.4	-1.1	-1.3	-2.1	-1.8
페루	-1.8	-2.0	-3.4	-5.0	-4.8
베네수엘라	4.1	8.0	3.2	3.2	3.4
중남미	-1.2	-1.3	-1.6	-2.4	-2.4

자료 | Global Insight.

6. 정부 지출 및 재정수지

:: 중남미의 정부지출은 일차산품 국제가격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됨.

| 2014년 중남미의 정부지출 증가율은 2013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2.1%에 그침.

| 국별로는 페루(6.4%), 콜롬비아(4.8%), 칠레(3.0%), 멕시코(2.9%), 아르헨티나(2.5%)가 중남미 평균 이상의 정부지출 증가율을 기록함.

주요국의 정부 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7.2	8.8	5.9	4.2	2.5
브라질	4.3	2.0	3.3	1.8	1.2
칠레	4.6	2.5	3.7	4.2	3.0
콜롬비아	5.6	3.6	5.7	5.8	4.8
멕시코	1.7	2.4	3.5	1.4	2.9
페루	5.6	4.8	8.1	6.7	6.4
베네수엘라	2.1	5.9	6.3	3.3	1.8
중남미	3.9	2.9	3.9	2.6	2.1

주 | 2014년은 추정치 자료
자료 | Global Insight.

:: 정부지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수 감소로 2014년 재정수지는 2013년에 비해 크게 악화됨.

| 2014년 중남미의 재정수지적자(GDP 대비)는 2013년에 비해 1.7%포인트 악화된 3.6%를 기록함.

| 2014년 중남미 재정수지 악화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의 재정수지적자 확대에 연유함.

|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페루(0.7%)가 유일하게 재정수지흑자를 기록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건실한 재정을 운영함.

| 그에 반해 베네수엘라는 -12%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 재정상황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GDP 대비)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0.2	-1.3	-2.0	-1.9	-3.3
브라질	-2.5	-2.6	-2.5	-3.3	-6.7
칠레	-0.4	1.4	0.7	-0.5	-1.9
콜롬비아	-3.1	-1.8	0.5	-0.9	-1.8
멕시코	0.0	0.0	0.0	0.0	0.0
페루	-0.1	2.0	2.0	0.7	0.7
베네수엘라	-10.2	-11.9	-11.4	-10.9	-12.0
중남미	-1.5	-1.5	-1.6	-1.9	-3.6

주 | 콜롬비아는 EIU Viewswire 자료

자료 | Global Insight, EIU Viewswire.

7. 실업률

:: 중남미에서 실업률은 경제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함.

| 2014년 중남미의 실업률은 2013년보다 소폭 낮은 5.9%를 기록함.

| 2013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 실업률 하락은 고용창출보다는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 국별로는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실업률이 201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함.

| 브라질의 실업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어든 4.9%를 보여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함.

| 콜롬비아의 실업률도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어든 9.1%를 기록했으나 중남미 주요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임.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7.7	7.1	7.2	7.1	7.6
브라질	6.8	6.0	5.5	5.4	4.9
칠레	7.7	7.1	6.4	6.0	6.3
콜롬비아	11.8	10.8	10.4	9.6	9.1
멕시코	4.9	4.5	5.0	4.9	5.1
페루	7.9	7.7	6.8	5.9	6.0
베네수엘라	8.5	8.2	7.8	7.5	6.9
중남미	7.9	7.1	6.6	6.4	5.9

자료 | Global Insight.

III. 금융·외환지표

1. 환율

::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커지며 큰 폭으로 상승(자국통화 가치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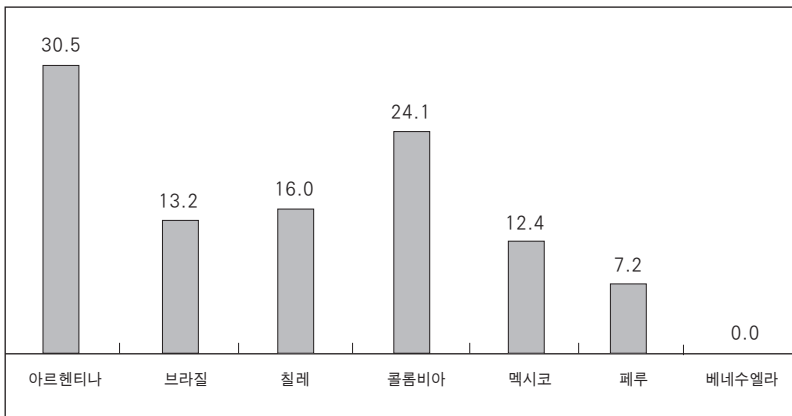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 순으로 환율 상승세가 현저함.

•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2014년 6월 말 디폴트 사태로 환율시장이 가장 극심한 혼란을 보임.

|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우 외견상 환율 변화가 없어 보이나 엄격한 외환 통제로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

주요국의 환율 변동률

(단위: %, 전년대비)



주 | 플러스는 환율 상승(자국통화 가치 하락), 마이너스는 환율 하락(자국통화 가치 상승)을 의미
자료 | 각국 중앙은행

주요국의 환율 추이

(단위: 달러 대비, 연말 기준)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3.96	4.30	4.92	6.52	8.51
브라질	1.67	1.88	2.04	2.35	2.66
칠레	468.37	521.46	478.60	523.76	607.4
콜롬비아	1,989.88	1,942.70	1,768.23	1,926.83	2,392
멕시코	12.36	13.95	12.97	13.08	14.7
페루	2.81	2.70	2.55	2.79	2.99
베네수엘라	4.30	4.29	4.29	6.29	6.28

자료 | 각국 중앙은행

2. 금리

:: 2013년과 달리 2014년에 중남미 금리는 국별로 엇갈린 행보를 보임.

| 물가가 낮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정책을 시행함.

| 그에 반해 물가상승 압박이 심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금리인상 정책을 시행함.

특히 이들 국가에서 금리인상 정책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도 사용됨.

| 그 결과, 중남미 전체적으로 단기금리는 2013년보다 1.2% 포인트 증가한 9.8%를 기록함.

주요국의 단기금리(연율 기준) 추이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9.2	10.7	12.0	14.9	20.4
브라질	9.8	11.7	8.5	8.2	10.9
칠레	11.8	12.4	13.5	13.2	10.8
콜롬비아	3.7	4.2	5.4	4.2	4.1
멕시코	4.4	4.2	4.2	3.8	3.0
페루	19.0	18.7	19.2	18.1	15.7
베네수엘라	18.0	17.4	16.2	15.6	17.2
중남미	8.9	9.8	8.8	8.6	9.8

자료 | Global Insight.

3. 소비자물가 상승률

::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식품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2014년 중남미의 소비자물가는 2013년보다 상승함.

| 특히 베네수엘라(57.6%)와 아르헨티나(21.4%)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중남미 전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3년과 달리 2014년에는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냄.

| 국별로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두자리수의 높은 물가 수준을 기록한데 반해, 콜롬비아, 페루, 칠레는 5%대 이하의 낮은 물가 수준을 나타냄.

| 브라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5.4%에서 2013년에는 6.2%, 2014년에는 6.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연말 기준)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10.5	9.8	10.0	10.6	21.4
브라질	5.0	6.6	5.4	6.2	6.3
칠레	1.4	3.3	3.0	1.9	4.4
콜롬비아	2.3	3.4	3.2	2.0	2.8
멕시코	4.2	3.4	4.1	3.8	4.0
페루	1.5	3.4	3.7	2.8	3.2
베네수엘라	29.0	27.1	21.1	38.5	57.6
중남미	6.1	6.6	6.0	7.0	8.9

자료 | Global Insight

4. 주가

:: 2013년과 달리 2014년 중남미 국별 주가는 상이한 특징을 보임.

| 2013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환율시장 불안,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와 이로 인한 성장세 둔화로 하락세를 보인바 있음.
| 그러나 2014년에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데 반해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냄.

- 콜롬비아 주가는 전년대비 6.4%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페루(-6.1%), 브라질(-2.9%)이 그 뒤를 이음.
-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3개 국(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주가는 전년대비 59% 폭등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함. 채무 디폴트 사태 등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서 아르헨티나 주가가 높은 상승세를 보인 이유 중의 하나는 투자자들이 아르헨티나 주식을 값싸게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임.

주요국의 주가 추이

(단위: 연말 기준)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MERV)	3,524	2,463	2,854	5,391	8,579
브라질 (BOVESPA)	69,305	56,754	60,952	51,507	50,007
칠레(IGPA)	22,979	20,130	21,070	18,227	18,870
콜롬비아 (COLCAP)	1,824	1,572	1,833	1,615	1,512
멕시코(PC)	38,551	37,078	43,706	42,727	43,146
페루(LIMA)	23,375	19,475	20,629	15,753	14,794
베네수엘라(IBC)	65,338	117,036	471,437	2,736,585	3,859

자료 | Bloomberg.

5. 외환보유고

:: 2013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외환보유고는 멕시코 및 브라질의 외환보유고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로 반전됨.

| 지난 10년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 오던 중남미의 외환보유고는 중남미 각국의 경상수지 악화에 다 환율시장 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으로 2013년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음.

| 2014년 10월 말 기준으로 중남미의 총 외환보유고는 전년보다 약 366억 달러 증가한 8,666억 달러를 기록함.

| GDP 대비 외환보유고 규모도 2013년 14%에서 2014년 14.2%로 증가했음. 그러나 그 규모는 2012년의 14.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국별로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베네수엘라에서 외환보유고가 감소한 데 반해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외환보유고는 증가함.

|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보다 25억 달러 감소했으며, 페루(-21억 달러), 칠레(-13억 달러), 베네수엘라(-10억 달러) 순으로 감소세가 현저함.

| 그에 반해 브라질과 멕시코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보다 각각 170억 달러, 168억 달러가 증가함.

주요국의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말 기준)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르헨티나	52,145	46,376	43,290	30,599	28,111
브라질	288,575	352,012	373,147	358,808	375,833
칠레	27,864	41,979	41,640	41,094	39,842
콜롬비아	28,464	32,303	37,474	43,639	47,373
멕시코	120,587	149,209	167,050	180,200	197,026
페루	44,150	48,859	64,049	65,710	63,577
베네수엘라	27,911	29,892	29,890	21,481	20,479
중남미	655,672	773,910	835,727	830,009	866,601

주 | 2014년은 10월 말 기준
자료 | ECLAC.

6. 국가신용등급

::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의 평가를 받음.

| Moody's, S&P,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판정을 받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임.

|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가 가장 투자등급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에 반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은 세 기관 모두로부터 투자 부적격 등급을 받음.



멕시코증권거래소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2015년 4월말 기준)

	Moody's		S&P		Fitch	
	등급	전망	등급	전망	등급	전망
과테말라	Ba1 2010-06-01	Stable 2008-12-18	BB 2006-07-17	Stable 2012-09-06	BB 2014-06-20	Stable 2014-06-20
도미니카공화국	B1 2010-04-22	Stable 2011-06-13	B+ 2011-06-13	Stable 2011-06-13	B 2006-05-05	Stable 2012-12-11
멕시코	A3 2014-02-05	Stable 2014-02-05	BBB+ 2013-12-19	Stable 2013-12-19	BBB+ 2013-05-08	Stable 2013-05-08
베네수엘라	Caa3 2015-01-13	Stable 2015-01-13	CCC 2015-02-09	Negative 2014-09-16	CCC 2014-12-18	- 2014-12-18
볼리비아	Ba3 2012-06-08	Stable 2012-06-08	BB 2014-05-15	Stable 2014-05-15	BB- 2012-10-02	Positive 2014-12-08
브라질	Baa2 2013-10-02	Negative 2014-09-09	BBB- 2014-03-24	Stable 2014-03-24	BBB 2011-04-04	Negative 2015-04-09
아르헨티나	Caa1 2014-07-31	Negative 2014-07-31	SD 2014-07-30	- 2014-07-30	RD 2014-07-31	- 2014-07-31
에콰도르	B3 2014-12-19	Stable 2012-09-13	B+ 2014-08-14	Stable 2014-08-14	B 2013-10-18	Stable 2013-10-18
엘살바도르	Ba3 2012-11-05	Stable 2012-11-05	BB- 2011-01-14	Negative 2012-12-21	BB- 2013-07-16	Negative 2013-07-16
우루과이	Baa2 2014-05-29	Stable 2014-05-29	BBB- 2012-04-03	Stable 2012-04-03	BBB- 2013-03-07	Stable 2013-03-07
칠레	Aa3 2010-06-16	Stable 2010-06-16	AA- 2012-12-26	Stable 2012-12-26	A+ 2011-02-01	Stable 2011-02-01
코스타리카	Ba1 2014-09-16	Stable 2014-09-16	BB 2005-06-10	Stable 2008-10-10	BB+ 2011-03-04	Stable 2011-03-04
콜롬비아	Baa2 2014-07-28	Stable 2014-07-28	BBB 2013-04-24	Stable 2013-04-24	BBB 2013-12-10	Stable 2013-12-10
트리니다드토바고	Baa1 2006-07-13	Stable 2006-07-13	A 2009-09-14	Stable 2011-08-04		
파나마	Baa2 2012-10-31	Stable 2012-10-31	BBB 2012-07-02	Stable 2012-07-02	BBB 2011-06-02	Stable 2011-06-02
파라과이	Ba1 2015-03-20	Stable 2015-03-20	BB 2014-06-11	stable 2012-08-29	BB 2015-01-29	Stable 2015-01-29
페루	A3 2014-07-02	Stable 2014-07-02	BBB+ 2013-08-19	Stable 2013-08-19	BBB+ 2013-10-23	Stable 2013-10-23

자료 | Moody's, S&P, Fitch.

IV. 기타 지표

1. 중남미 교육의 질 평가

:: 중남미 국가(19개국 기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가 교육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아르헨티나에 이어서는 우루과이(2위), 칠레(3위), 베네수엘라(4위), 브라질(5위) 순으로 교육의 질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됨.

| 그에 반해 아이티,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평가됨.

중남미 교육의 질(Latin Education Index 2014)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아르헨티나	22.14
2	동일	우루과이	21.47
3	동일	칠레	21.18
4	동일	베네수엘라	21.02
5	+1	브라질	20.33
6	-1	콜롬비아	20.22
7	+1	볼리비아	20.09
8	+3	페루	20.02
9	-2	멕시코	19.84
10	동일	코스타리카	19.80
11	-2	파나마	19.74
12	동일	에콰도르	18.72
13	동일	파라과이	18.66
14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8.59
15	동일	엘살바도르	17.84
16	동일	온두라스	17.73
17	+1	과테말라	16.80
18	-1	니카라과	16.69
19	동일	아이티	10.33
중남미 평균			19.01

주 | 중남미 교육 지수는 초등교육의 질, 25세 이상 성인의 평균교육년수, 기대교육년수, 총등록률, 문자해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

2. 중남미 글로벌화지수 평가

:: 중남미 비교 대상 18개국 중에서는 파나마가 가장 글로벌화 지수가 높은 국가로 평가됨.

| 그밖에 온두라스(2위), 니카라과(3위), 칠레(4위), 파라과이(5위) 순으로 글로벌화 지수가 높은 것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글로벌화 수준이 낮은 국가들로 평가됨.

중남미 글로벌화지수(Latin Globalization Index 2014)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지수
1	동일	파나마	20.35
2	동일	온두라스	16.21
3	동일	니카라과	14.70
4	동일	칠레	13.98
5	+1	파라과이	13.95
6	-1	코스타리카	13.11
7	+9	베네수엘라	12.99
8	-1	볼리비아	12.93
9	-1	도미니카공화국	11.89
10	-1	우루과이	11.81
11	-1	엘살바도르	11.48
12	-1	멕시코	11.39
13	-1	에콰도르	10.68
14	동일	페루	9.52
15	동일	과테말라	9.33
16	+1	콜롬비아	9.33
17	-4	아르헨티나	9.31
18	동일	브라질	8.19
중남미 평균			12.29

주 | 글로벌화 지수는 GDP대비 수출입, 외국인직접투자(FDI), 관광수입, 해외송금 유입 비중, 인터넷 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

3. 중남미 노동환경 평가

:: 중남미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가 노동환경이 가장 양호한 국가로 평가됨.

| 그밖에 멕시코(2위), 과테말라(3위), 파나마(4위), 콜롬비아(5위)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노동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18위), 온두라스(17위), 파라과이(16위), 베네수엘라(15위) 등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중남미 노동환경(Latin Labor Index 2014)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319.6
2	동일	멕시코	283.0
3	동일	과테말라	195.9
4	동일	파나마	189.0
5	동일	콜롬비아	179.0
6	+2	도미니카공화국	171.7
7	+3	페루	165.2
8	+1	니카라과	159.9
9	+2	코스타리카	153.3
10	-4	우루과이	153.2
11	+1	엘살바도르	142.6
12	+2	에콰도르	137.6
13	+3	볼리비아	134.3
14	+3	브라질	131.6
15	-2	베네수엘라	122.1
16	-1	파라과이	119.1
17	+1	온두라스	102.1
18	-11	아르헨티나	39.5
중남미 평균			161.0

주 | 중남미 18개국에서 모든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18개 변수를 고려해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

4. 중남미 세제 환경 평가

:: 중남미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칠레의 세제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됨.

| 칠레에 이어 파라과이(2위), 온두라스(3위), 페루(4위), 우루과이(5위)도 세제환경이 양호한 국가군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18위), 볼리비아(17위), 아르헨티나(16위) 순으로 세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중남미 세제환경(Latin Tax Index 2014)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칠레	7.75
2	동일	파라과이	8.62
3	+3	온두라스	9.63
4	-1	페루	9.66
5	-1	우루과이	10.12
6	+2	과테말라	10.22
7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10.48
8	-3	엘살바도르	10.54
9	동일	코스타리카	11.01
10	동일	파나마	11.24
11	동일	멕시코	11.77
12	동일	니카라과	11.98
13	동일	에콰도르	12.21
14	동일	콜롬비아	12.23
15	동일	베네수엘라	18.20
16	동일	아르헨티나	18.42
17	동일	볼리비아	21.51
18	동일	브라질	35.42
중남미 평균			13.39

주 | 중남미 세제환경 지수는 중남미 18개국의 법인세율, 이윤세율, 세금 납부 시간, 세금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자료 | Latin Business Chronicle.

5. 중남미 치안환경 평가

:: 중남미 국가(19개국 기준) 중에서는 코스타리카의 치안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칠레, 우루과이도 코스타리카 못지않게 치안이 안전한 국가군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 멕시코가 치안이 매우 위험한 국가들로 조사됨.

중남미 치안환경(Latin Security Index 2014)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1	베네수엘라	5
2	+1	온두라스	5
3	+1	과테말라	5
4	-3	아이티	5
5	동일	멕시코	5
6	동일	엘살바도르	4
7	동일	브라질	4
8	+1	콜롬비아	4
9	-1	볼리비아	4
10	+4	니카라과	4
11	+4	아르헨티나	3
12	-1	파라과이	3
13	-1	페루	3
14	-4	도미니카공화국	3
15	-2	에콰도르	3
16	동일	파나마	3
17	동일	우루과이	2
18	동일	칠레	2
19	동일	코스타리카	2
중남미 평균			3.63

주 | 1=안전한 국가, 5=매우 위험한 국가
자료 | FTI Consulting IberoAmerica.

6. 중남미 인프라환경 평가

:: 중남미 국가(18개국 기준) 중에서는 파나마의 인프라환경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밖에 칠레(2위), 우루과이(3위), 코스타리카(4위), 아르헨티나(5위)도 인프라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국가군으로 분류됨.

| 그에 반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파라과이(18위), 베네수엘라(17위), 온두라스(16위) 순으로 인프라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중남미 인프라환경(Latin Infrastructure Index 2014) 순위

순위	순위 변화	국가	점수
1	동일	파나마	71.66
2	동일	칠레	71.31
3	동일	우루과이	69.75
4	동일	코스타리카	63.91
5	+1	아르헨티나	61.94
6	-1	엘살바도르	61.03
7	동일	멕시코	58.30
8	동일	에콰도르	57.63
9	동일	브라질	57.05
10	동일	과테말라	56.16
11	동일	페루	54.20
12	동일	도미니카공화국	54.02
13	동일	콜롬비아	53.47
14	동일	니카라과	50.27
15	동일	볼리비아	48.25
16	동일	온두라스	47.93
17	동일	베네수엘라	46.78
18	동일	파라과이	46.35
중남미 평균			57.22

주 | 교통, 정보통신기술, 상수도, 전력 접근성 등 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자료 | Latin Infrastructure Index 2014.